

의 나라를 윤리나 도덕, 나아가서는 기존 종교가 만든 자(尺)로 잴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8) 손익계산이 없는 세계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이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아홉시쯤 나가서 사람들이 일없이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적당한 값을 주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이 가서 일했다. 주인이 열두시에 다시 나가서 그렇게 하고 또 오후 세시쯤 나가서 그렇게 했다. 오후 다섯시쯤 또 나가보니 아직도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이렇게 일없이 서성거리고 있소?’ 하고 말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저물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맨 먼저 온 일꾼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말했다. 오후 다섯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좀더 받을 줄 기대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들은 주인에게 불평을 했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쪼는 더위 속에서 땀을 흘려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은 대우를 당신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불공평하지 않았소.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의 값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들에게 준 만큼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는 것은 내 뜻이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나의 착한 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마태 20, 1~15)

이것은 한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에서 보면 농산물이래야 올리브, 무화과, 밀, 겨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포도를 볼 수 있는데, 그때의 팔레스틴에서 농사짓는 곡식 종류가 지금에 비해 단조로웠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가 오늘 한국에 계시다면 논, 밭, 감자밭, 무, 배추, 옥수수 등등 훨씬 다채로운 소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그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비유하는 데도 편리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안 짓거나 간에 밭에서 곡식을 보거나 시장에서 사먹어도 그저 맛이나 따지지만, 예수는 어느 하나 소홀히 넘기지 않고 그것을 심거나 추수하거나 또는 그것을 먹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핵심을 찌르곤 합니다.

이것은 포도원에서는 드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주인은 부농이었나봅니다. 그는 여느 날과 같이 아침 일찍 일터를 구하기 위해 일꾼들이 늘 모여 있는 시장으로 가서 일찍 온 일꾼들에게 그때 한 가정의 최소한의 하루 생활비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도시마다 ‘인력시장’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리로 찾아가서 일에 알맞은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예수 당시에도 유대인 사회에서 일정한 일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장터 한구석에 모여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지금의 우리 경우와는 달리 하루에 고용되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어서 기다리는 일꾼들은 원하는 임금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어쩌다 불러가는 사람들을 남은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그중 대부분의 일꾼들은 하루 종일 배를 곶고 부를 사람들을 눈 빠지게 기다리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집에 간다는 것은 바로 온 식구들이 그날 저녁과 이튿날을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허탈을 친 일꾼들의 귀가길은 암울했을 것입니다.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일터가 없다는 것은 그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반증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9시 쯤에 다시 장터로 나가서 일터를 찾는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그는 12시에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저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9시 이후부터 불러들이는 일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한 만큼 ‘적당한’ 값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처사를 합니다. 이미 해가 기울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무렵인 5시에 또다시 그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일없이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어 더 이상 일꾼을 찾는 사람이 올 시간이 아닌데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식을 벌여 오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때문에 차마 빈손으로 집으로 돌

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자신의 포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과는 각기 일한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거의 일할 시간이 없었으니 노동한 만큼 임금을 지불한다면 몇 푼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다시 상식에 어긋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저들에게 일삿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불렀습니다. 저들이 일한 시간이 새벽부터 온 사람들에게 비해 10분의 1 정도였다면, 저들은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약속된 것이 아니니 나서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주인은 저들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진 떡인 셈입니다.

이 주인은 저들과 똑같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일삿을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주인의 행위는 ‘사회문제’로 둔갑합니다. 이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그 주인의 처사가 ‘형평원칙’을 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온 패들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의 노동조합장을 뿔듯이 대표를 선정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한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같은 대우를 당신은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주인이 항의하는 이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들은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그 비율로 으레 더 많이 주리라는 일방적인 기대를 했다가 어긋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그 대표에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의 삶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마태 20, 13).

기존의 세태에서 보면, 이 주인의 말로 시비는 끝나야 합니다. 그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또 그 약속은 상대방에게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주인이 일삿 지불 순서를 처음 온 사람들부터 시작했더라면 저들은 아무 불평 없이 약속된 값을 받았으므로 만족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 주인은 일부러 마지막 온 사람들부터 값을 줌으로써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온 사람들의 불평을 그 대로 노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답을 찾기 전에 잠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봅시다.

그는 가난한 실업자들의 실태를 주목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노동을 하여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받는 것이 고작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삶의 보람이 어디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구복(口腹)이 원수라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한 만큼 삯을 알맞게 주는 것이 ‘형평원칙’이며, 정의구현에도 맞습니다. 고용하는 자나 일꾼은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노동력이 팔고 팔리는 인력시장에선 사람, 그리고 그 존엄성은 쪽 빠져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길이 없어서 실업자가 된 사람의 문제는 관심에서 제외됩니다. 고작해야 무능해서 또는 게을러서 그렇다는 낙인만 찍을 것입니다.

이런 세태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세상에 예수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한 통념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마르 2, 27)라고 한 그가 이 같은 사회 통념의 자명함을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형평’을 내세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따위로는 새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도 “하늘나라는 마치”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는 어느 정도나 그 나라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주인의 행위와 답변 중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나의 착한 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마태 20, 15)

이 주인의 반응은 지금의 사회개혁이라는 시각에서 받아들이면 거부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발상이요, 발언이 아니냐!’고 단번에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의 ‘나’ 또 ‘내 것’을 이 시대에서 말하는 ‘자본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대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나’ 또는 ‘내 것’을 새 세계인 하느님 나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귀족사회에서 ‘나’는 사회신분적으로 왕이나 귀족이었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본가’인 데 대해, 공산사회에서 그 ‘나’는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이처럼 혁명은 그 주체를 바꿉니다. 하물며 하느님 나라에 있어서이랴. 하느님 나라의 새 질서, 새 가치는 기존 질서의 어떤 항의나 거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나’는 낡은 질서에서의 계약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로 낡은 질서에 내분을 일으키고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질서가 이 만족감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득권, 우선권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어놓은 것입니다. 만족해야 할 사람을 불평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질서, 새 가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노동력

으로 보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질서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세계입니다. 이 주인은 노동과 돈을 교환하는 세계를 교란하고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새 세계를 제시합니다. 짧은 시간 일한 사람도 긴 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살 권리가 있고 삶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이가 가르친 기도에서 ‘하느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한 다음 곧바로 ‘우리에게 그날 그날의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이 이야기와 맥이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절망과 희망(씨 뿌리는 농부)

들으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자 싹은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리니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씨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었다

(마르 4, 3~8 / 병행 마태 13, 3~8; 루가 8, 5~8).

이것은 마르코복음의 비유 중에서 맨 처음에 실린,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보다 적어도 20년쯤 뒤에 쓰여진 마태오와 루가